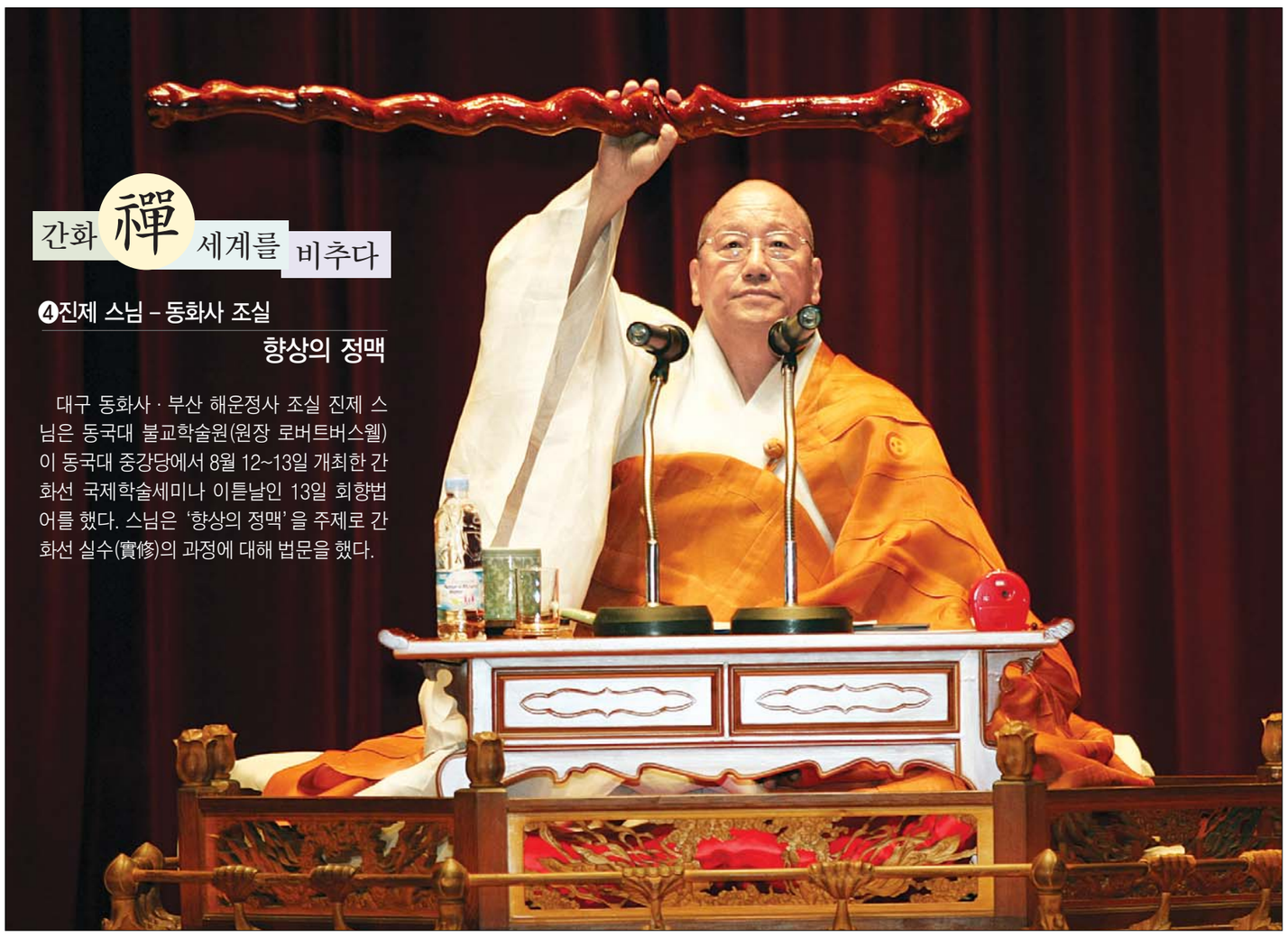
참된 화두 받아 실다운 의심으로 일념에 들라



간화 禪 세계를 비추다

❹진제 스님 – 동화사 조실

향상의 정맥

대구 동화사 ·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버스웰)이 동국대 중강당에서 8월 12~13일 개최한 간화선 국제학술세미나 이튿날인 13일 회향법어를 했다. 스님은 '향상의 정맥'을 주제로 간화선 실수(實修)의 과정에 대해 법문을 했다.

[上堂하시어 拄杖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고,]

방금 들어 보인 이 주장자 이 진리, 몇 사람이나 알꼬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성인들도 다 알지 못함이로다.

한 막대기 주장자가 문득 금빛 용으로 화해서 한량없는 용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림이로다.

這箇拄杖幾人會 三世諸聖總不識
一條拄杖化金龍 應化無邊任自在

산승이 27세 때 화두를 타파해 이렇게 게송으로 글을 써서 올리니, 향곡(香谷) 선사께서 이 게송을 보시고는 전구(前句)는 묻지 아니하고, 후구(後句)를 들어서 대뜸 물으셨습니다. 這箇拄杖幾人會 三世諸聖總不識이 구절이 전구가 되고, 一條拄杖化金龍 應化無邊任自在 하는 구절이 후구가 되는데 이 뒷구절을 들어서 대뜸 물으신 것입니다.

"너 문득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金翅鳥)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려는고?"

여기에는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즉시 답하기를,

"屈節當胸 退身三步(굴절당흉 퇴신삼보; 전신(全身)을 움츠리고 당황하여 몸을 세 걸음 물러가다)입니다."

"이렇게 답하니, 향곡 선사께서는

"옳고, 옳다!"라고 하시었습니다.

50여 년 전 산승이 이 구절을 들어 금오(金烏) 선사께,

"향곡 선사의 물음에 산승이 답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하고 물으니, 금오 선사께서는

"용이 살아가는 모습일세"라고 답하시어 서로 상통이 됐습니다.

간화선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수행법이지만 법맥(法脈)을 통해서만 내려오다가, 중국으로 넘어와 간화선을 참구한 공덕으로 무수의 도인(道人)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귀한 수행법이 오직 한 가닥 한국에만 남아있으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처지라, 그래서 산승이 다시금 전 세계 선풍을 크게 드날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간화선을 실답게 참구(參究)하는 방법을 소상히 말씀드릴 터이니,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서는 잘 경청하여 받아가져서 일생의 귀한 자산이 되고 나아가 대오견성(大悟見性)하여 자기의 '참나'를 밝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화선을 실답게 참구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선지식으로부터 참된 화두(話頭)를 받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다운 의심(疑心)으로 일념(一念)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승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화두를 드릴 터이니, 화두가 있는 분은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분들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이 화두를 들어서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씨름해서, 가고 오고 일하고 산책하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가운데 흐르는 물과 같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화두일념(話頭一念)이 도래하지 않으면 깨달을 분(分)이 없습니다. 한강의 모래알 숫자와 같은 무한한 전생에 중생의 습기(習氣)만 익혀왔기 때문에 설사 출가인연(出家因緣)을 맺었다 할지라도 사사시주(四事施主)의 은혜를 녹일 수가 없고, 생사안두(生死岸頭)에 다다라 자유의 분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중생의 업식(業識)과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화두일념이 되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쭈욱 흐르다가 무르익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앉고 서고 눕고 보고 듣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모르게 되니, 그렇게 모든 것을 잊고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힘이 솟구치게 되는 법입니다. 그 힘에 모든 삼생의 업이 다 소멸되고 부처님과 같은 밝은 눈을 갖추어서 너도 도인(道人)이요 나도 부처가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깨닫는 이치는 오직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는 있질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저 어린아이들의 울음을 달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니, 모든 분들이 대오견성할 수 있도록 정진에 정진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화두 들라
생활에서 흐르는 물 같이 화두가 끊이지 않도록 정진

석일(昔日)에 반산보적(盤山寶積) 스님이 어느 해 한 철 공부를 마치고 해제 후, 걸음걸음 화두와 씨름하며 다른 처소로 가던 길에 우연히 식육점 앞을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와서,

"깨끗한 고기 한 근 주시오"라고 말하니, 주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차수(叉手)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깨끗하지 못한 고기입니까?" 이 말이 귓전을 스치는데 보적 스님에게 팔부의 눈이 열렸습니다.

또 다시 정진에 몰두하다가 어느 날, 마을 동구 밖을 지나가다가 상여꾼들을 만났습니다. 상여꾼들이 노제(路祭)를 지내고 상여(喪輿)를 메면서 선소리하기를,

"청천(靑天)의 붉은 수레는 결정코 서쪽으로 기울어가건마는, 알지 못하겠구나. 금일 영혼은 어디로 가는고?"라고 하니, 상주들이 일제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哭)을 했습니다. 이 곡하는 소리에 보적 스님은 여지없이 확철히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그 길로 마조(馬祖) 선사를 찾아가 점검받아 마조 선사의 법을 이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80여 년 전 양주 망월사(望月寺)에 30년 결사를 하자고 발심한 전국의 스님들이 다 모여들어 참으로 실답게 수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용성(龍城)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 조계종의 초대종정이셨던 석우(石友) 선사를 선덕으로 모시고, 혜월(慧月)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운봉(雲峰) 스님을 입승으로 하여 여법히 용맹정진에 몰두했습니다.

반살림이 도래했을 때 조실이신 용성 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시기를,

"나의 참 모습은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고 역대의 모든 도인들도 보지 못함이어니,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고?"라고 일구(一句)를 던지시니, 이 때 운봉 스님이 일어나 답하기를,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용성 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즉시 법상에서 내려오셔서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문을 들어 30여 년 전에 산승의 스승인 향곡 선사께서 산승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만약 당시에 용성 선사가 되었다면, 운봉 선사가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라고 답을 할 적에 무엇이라고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느냐?"

만일 용성 선사께서 답처(答處)를 점검하고 내려갔다면 금상첨화로 더없이 빛났을 것이기에 산승에게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답하기를,

"사자(獅子)가 선릉 사자후를 하셨습니다"라고 답하니,

"아주 멋진 점검을 하는구나!" 하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만공(滿空) 선사께서는 수덕사(修德寺)에서 멋진 회상을 열어서 제방의 수좌들을 제접하셨는데, 하루는 초가을에 수좌들과 마루에서 좌담을 나누는 차제에 처마 끝에서 새가 한 마리 푸울 날아가는 것을 보시고 수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새가 하루에 몇 리를 날아가는고?"

이렇게 멋진 일구를 던지시니 아무도 말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만공 선사의 아끼던 제자 보월(寶月) 스님이 답했습니다.

"촌보(寸步)도 처마를 여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 이에 만공 선사께서는 과연 명답을 했다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틀에 다다라 척척 바른 답이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공 선사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보월 선사에게 법을 전하고자 했으나 보월 선사가 일찍 입적(入寂)하니, 훗날 금오(金烏) 선사를 보월 선사의 제자로 봉(封)해 그 법을 잇게 하셨습니다.

만공 선사께서 열반에 드신 후로 오랫동안 산중의 조실자리가 비어 있으니, 한 때 고봉(古峰) 선사를 조실로 모시고자 하여 처음 법상에 모시는데 고봉 선사께서 일어나서 법상에 오르려는 차제에 문득 대중 가운데서 금오 선사가 따라 나와 고봉 선사의 장삼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스님, 법상에 오르기 전에 한 말씀 이르십시오."

그러자 고봉 선사께서는,

"장삼자락 놔라" 하셨습니다. 금오 선사가 다시 묻기를

무료초청공연

❁ 2010년 10월 2일(토) 오후 6시
❁ 인각사 학소대 수변무대

• 1부 : 정통 산사음악회 [사회 : 박수경 아나운서]
달구벌 북춤(황보영), 성악(임성규 바리톤), 무용(아리무용단),
시노래(시노래풍경 진우), 국악연주(임교민 외 5명), 정율스님(찬불가)
• 2부 : 삼국유사 뮤지컬 "단군"
• 3부 : 대동마당 [사회 : 방송인 김병조]
신비, 비바보체, 윤사월, 박정식, 장미화, 이마음

▲손소연 ▲장미화 ▲황보 영 ▲김병조 ▲시노래풍경 진우 ▲임성규 ▲아리무용단
▲연세영 ▲윤사월 ▲박수경 ▲박정식 ▲김나영 ▲신비 ▲정율스님 ▲이마음

❁주 최 : 麟角寺 / 군위군 ❁주 관 : (사)일연학연구원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종무원 |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은해사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대한불교조계종 원융화쟁회 | 삼각산 도선사